

우드



초 등 부

소 년 부

약 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오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 |
|----------------------------|----|
| ☺ 1월 교육 내용 | 04 |
| ☺ 1월 첫째 주 | |
| 분반 모임 Memory Time | 06 |
|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07 |
| 어린이 QT God's Time | 08 |
| ☺ 1월 둘째 주 | |
| 어린이 QT God's Time | 18 |
|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19 |
| 어린이 QT God's Time | 20 |
| ☺ 1월 셋째 주 | |
| 분반 모임 Memory Time | 30 |
|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31 |
| 어린이 QT God's Time | 32 |
| ☺ 1월 넷째 주 | |
| 분반 모임 Memory Time | 42 |
|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43 |
| 어린이 QT God's Time | 44 |
| ☺ 1월 다섯째 주 | |
| 분반 모임 Memory Time | 54 |
|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55 |
| 어린이 QT God's Time | 56 |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 64 |
|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 65 |
| ☺ 1월 편편 플레이 | |
| 퍼즐 | 66 |
| 글자 찾기 | 67 |
| ☺ 위드큐티스티커 | 68 |
| 위드포토 | 69 |
| ☺ 1월 추천도서 | 70 |
| ☺ 1월 교육활동지 | 71 |



암송 구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 30)

♥첫째주♥

“따뜻한 가정
훈훈한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10)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만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둘째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마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17)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셋째주♥

“기억하며
예배하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출애굽기 12:24)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넷째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사무엘상 3:7)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다섯째주♥

“좋은땅을
준비해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누가복음 8:15)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천 내용

1. 예배를 준비하는 습관을 갖아요.(기도, 헌금, 삶 등등.)
2.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요.
(큐티, 성경읽기 등)

위드

W I T H

1월 첫째주
2016년 1월 3일~9일



Memory Time



따뜻한 가정,
훈훈한 교회

첫 번째 주

- ♥ 주제 : 예배와 말씀
- ♥ 암송구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10
- ♥ 성경 이야기 : 따뜻한 가정, 훈훈한 교회 ▷갈라디아서 6:10
- ♥ 오늘의 포인트 :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만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나요?

- ②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교육 활동 - “자기소개”

- ① 처음 만나 서먹한 친구들과 교사가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② 워드 뒤쪽 교육활동지에 소개된 질문지로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③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④ 모든 친구의 자기소개가 끝나면, 교사의 기도로 마무리해주세요.

Sweet Time

가족과 함께하는



- ♥ 주제 : 예배와 말씀
- ♥ 암송구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10
- ♥ 오늘의 포인트 :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만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따뜻한 가정, 훈훈한 교회 ▷갈라디아서 6:10

더 이상 교회만으로 친구들의 신앙교육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일 몇 시간의 경건 훈련으로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힘을 모아야 해요. 그래야만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Q1 우리 가정에서 신앙훈련(경건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2016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Pray 우리 가족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 수 있도록 신앙훈련에 힘쓰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 2016 . . .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누가복음 18:31-34 “십자가 죽음과 부활”

3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32.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박음을 당할 것이다.
33.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34.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말씀
속으로

1. 예언자들이 기록하기를 '인자'가 겪게 될 일은 무엇인가요?(32-33절)

2. '인자'는 그 모든 일을 당한 후에 어떻게 되나요?(33절)

3.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말씀속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기록된 대로, 인자가 겪게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셨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고, 알지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

기도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매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제가 되길 원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매일 매일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본문

누가복음 18:35-43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35. 예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36.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 보았다.

37.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38.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9.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0.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41.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4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43.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말씀
속으로

1. 눈 먼 사람은 큰 목소리로 무엇이라고 외쳤나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38, 39절)

“□□□□□ 예수님,
나를 □□□ 여겨 주십시오!”

2. 앞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눈 먼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빈칸을 채워보세요.(42절)

“□□□□□,
□□□□□이 □□□□□를 □□□□□하였다.”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눈먼 사람이 크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쳐주시리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물으시고, 그의 소원대로 앞을 볼 수 있게 즉시 고쳐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들, 걱정과 외로움, 아픔 등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나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문제들, 걱정과 외로움, 아픔 등)을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분명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실 것이예요.

기도문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해보세요.
나의 마음을 글로, 기도문으로 써주세요.

.....
.....
.....

누가복음 19:1-7 “삭개오의 집에 묵으신 예수님”

1. 예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2.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3.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4.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6.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였다.
7.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말씀
속으로

1. 키가 작은 삭개오는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행동
했나요?(4절)

2. 예수님께서서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5절)

3. 예수님께서서 삭개오의 집에 묵는 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수군거렸나요?(7절)



말씀속으로

당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빼앗아 거두는 악명 높은 죄인이었
어요. 그렇다보니 사람들에게 미움 받고, 소외당하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서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부끄러움도 마다하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 삭개오의 간절함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 8:17)“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 상관하지 않고,
따뜻한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해보아요.

기도로

예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사랑해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누가복음 19:8-10 “변화된 삭개오”

8.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
속으로

1.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했나요?
빈칸을 채워보세요.(8절)

“주님, 내 소유의 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로 갚아 주겠습니다.”

2.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0절) 빈칸을 채워보세요.(10절)

“인자는 을 찾아 하러 왔다.”

심속으로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어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겠습니다.” 죄인으로 악명 높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예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세상을 환하게 밝혀 주는 삶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써 오늘 하루 따뜻한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기도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하리라”

-사무엘상 2:30-



위드

W I T H

1월 둘째주
2016년 1월 10일~16일



Memory Time

말씀
자재 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 주제 : 예배와 말씀

♥ 암송구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17

♥ 성경 이야기 :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사무엘상 2:12~17

♥ 오늘의 포인트 :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12-16절)
- ②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17절)
- ③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느꼈나요?
- ④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교육 활동 - 우리 반 예배약속

- ① 친구들과 교사가 우리 반의 예배 약속에 대해서 의논해보세요.
- ②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동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반 예배 약속 시트에 기록해보세요.
(친구들 스스로 적도록 해주세요)
- ③ 친구들 스스로가 정한 약속이니 이것을 앞으로 1년 동안 잘 지켜 나가자고 제안해주세요.
- ④ 서로 예배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예배와 말씀
- ♥ 암송구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17
- ♥ 오늘의 포인트 :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사무엘상 2:12~17

예배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돼요.

가치가 있는 것은 가치를 가지고 대해야해요.



Q1. 우리 가정에서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요.

Pray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가족이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해요.

GOD'S 둘째주 TIME 1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누가복음 19:11-19 “므나 비유”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13.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다가 열 *므나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14.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15.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16.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습니다.'
17.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이야,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18.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벌었습니다.'
19.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 므나 : 화폐 기본 단위는 그리스는 드라크마, 로마는 데나리온이다.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1므나는 100드라크마였다(눅 19:13, 16, 18).

그러므로 1므나는 대략 노동자의 3개월 품삯에 해당한다.

말씀
속으로

1. 예수님께서 ‘열 므나 비유’를 드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1절)



2. 15-19절 말씀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첫째 종은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다.
- ② 둘째 종은 한 므나로 두 므나를 벌었다.
- ③ 주인은 “착한 종아, 잘했다”라며 칭찬했다.
- ④ 주인은 첫째 종에게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상을 주었다.
- ⑤ 주인은 둘째 종에게 다섯 고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상을 주었다.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므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귀족 출신의 한 사람(주인)이 종 열 사람을 불러 은화 1므나씩 나눠주며 장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러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보았어요. 첫째 종은 열 므나를 남겨서 주인의 칭찬과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둘째 종은 다섯 므나를 남겨서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므나 비유를 통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종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오늘은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내게 맡기신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보면 어떨까요?

기도로

예수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해내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길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20-27 “악한 종에게 내려진 벌”

20.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므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21.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므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22.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24. 그리고 그는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므나를 빼앗아서, 열 므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5.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열 므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말씀
속으로

1. 좋은 주인이 맡긴 므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20절)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1절)

2. 주인은 종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22절)

3. 결국 종이 받은 벌은 무엇인가요?(24절)

말씀
속으로

어떤 한 좋은 주인을 무섭고 엄한 분으로 생각하여 주인에게 받은 은화 한 므나를 수건에 싸서 고스란히 보관해두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오로지 은화 한 므나밖에 없었어요. 결국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좋은 주인에게 책망받고 가진 것조차 빼앗기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때에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내었는지 보실 것이예요. 그 때에 여러분은 칭찬받고 싶나요? 아니면 책망받고 싶나요? 우리 모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 행동해보아요.

기도문

주인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길 원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건강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씀
부모님

누가복음 19:28-34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29.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30.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1.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32.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33.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34.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말씀
속으로

1.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두 제자에게 무엇을 끌고 오라고 하셨나요?(30절)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한 마리



2. 말씀을 읽고, 옳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예수님께서서는 말을 구하기 위해 제자 두 사람을 보냈다.
- ② 예수님께서서는 새끼 나귀 두 마리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다.
- ③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 ④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귀를 푸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 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나귀를 가져왔다.

말씀속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세상을 통치할 왕이 되는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질문한 것이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이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기도문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시는 예수님!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35-40 “새끼 나귀에 타신 예수님”

35.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엮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36.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37.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38.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39.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40.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

말씀
속으로

1. 말씀을 읽고, 일어난 순서에 맞게 번호를 써보세요.
(→ → → → →)

- ① 제자와 온 무리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 ② 제자들이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엮었다.
- ③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 ④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왔다.
- ⑤ 예수님께서 나귀에 올라타셨다.
- ⑥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2. 제자들을 꾸짖으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40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심속으로

제자들은 새끼 나귀 위에 자기들의 옷을 걸쳐 엮고, 길에 자기들의 옷을 깔고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삼으며 화를 냈어요.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겹옷을 벗어 길에 퍼면서까지 예수님을 맞이하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돌들도 주님을 찬양해요. 이 땅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기쁘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맞이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만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찬양해요!

기도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 땅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하리라”

-사무엘상 2:30-



위드



1월 셋째주
2016년 1월 17일~23일



Memory Time



기억하며 예배 하세요

십
사
주

♥ 주제 : 예배와 말씀

♥ 암송구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 출애굽기 12:24

♥ 성경 이야기 기억하며 예배 하세요. ▷ 출애굽기 12:21~28

♥ 오늘의 포인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가요?(27절)
- 2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본문 출애굽기 12:21-22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 3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친구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 4 매주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 교육활동 - “우리반 소개 신문 만들기”

- 1 지난 주일 함께 찍은 사진을 나눠 드립니다.
- 2 사진을 붙이고, 각 자 자신의 소개와 2016년도 기도제목과 바람을 적도록 합니다.
(친구들에게 이것은 전도사님이 우리를 알고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미리 알려 주세요.)

Sweet Time

가족과 함께하는



♥ 주제 : 예배와 말씀

♥ 암송구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 출애굽기 12:24

♥ 오늘의 포인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 오늘의 성경 이야기 기억하며 예배 하세요. ▷ 출애굽기 12:21~28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억의 의미가 있어요. 마치 우리들이 일 년에 한 번씩 생일을 보내며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듯 말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요.
그리고 다시 그 기억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Q1.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Pray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16 . . .

부모님 확인 :



누가복음 19:41-44 “예루살렘을 위한 눈물”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42.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종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43.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44.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
속으로

1.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41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44절)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 흘리셨어요. 세상을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예루살렘처럼 평화의 왕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슬퍼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며 눈물 흘려야 해요.

오늘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기도문

주변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기도문을 써보세요.

.....

.....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씀
만남

누가복음 19:45-48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45.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48.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
속으로

1.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① (45절)

② (47절)

2.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반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빈칸을 채워보세요.(46절)

-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전'은

-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당시 성전에는 상인들이 제사에 드릴 동물을 팔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제사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핑계를 대며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어 마치 시장터처럼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그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해요. 성전은 상인들처럼 나의 이익을 추구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해요. 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요.

기도로

하나님!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제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고 거룩한 곳,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만남

누가복음 20:1-8 “예수님의 권한을 시기한 사람들”

1.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2.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4.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5.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6.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7.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만
삼
속
으로

1.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나요?(2절)'라고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2.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장로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낫냐는 물자, 그들이 모른다고 대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5-7절)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삼
속
으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랍비에게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데다 제사장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성전에서 가르치고 활동하는 권한을 누가 주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한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혹시 나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나요? 또는 누군가를 시기하여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부인하고 있지 않나요? 나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기도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향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위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16 . . .

부모님 확인 :



누가복음 20:9-12 “포도원 농부 비유”

9.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10.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 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11.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12.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만남
수업
시간

1. 포도원 주인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나요?(10-12절)

- ① (10절)
- ② (11절)
- ③ (12절)

2.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서로 의미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 | | |
|----------|-------------|
| 포도원 주인 . | . 대적하는 지도자들 |
| 포도원 . | . 하나님 |
| 포도원 농부 . | . 선지자들 |
| 종 . | . 이스라엘 백성 |



심숙으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들을 계속 보냈지만 농부들에게 폭행만 당하고 돌아왔어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 농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 종은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지도자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대적하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며 계속해서 종을 보내 주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기도로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에 감사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하리라”

-사무엘상 2:30-



위드



1월 넷째주
2016년 1월 24일 ~ 30일



Memory Time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네
사랑해주

♥ 주제 : 예배와 말씀

♥ 암송구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 사무엘상 3:7

♥ 성경이야기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 사무엘상 3:1~9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께서 말씀은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어린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엘리의 음성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7절)
- ②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어떻게 대답하라고 일러주었나요?(9절)
- ③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④ 말씀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 교육활동 - “더 깊은 말씀 나눔”

- ① 오늘은 말씀 나눔을 좀 더 깊이 하게 됩니다.
- ② 본문을 한 번 더 찾아서 읽고 위의 말씀 나눔으로 서로 나누도록 합니다.
- ③ ‘사무엘’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예배와 말씀

♥ 암송구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상 3:7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 오늘의 성경 이야기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1~9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 오시고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Q1.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Pray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힘쓰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 2016 . . .
부모님 확인 :



누가복음 20:13-18 “아들을 죽인 농부들”

13.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14.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 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이 되게 하자.'
15.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7.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18.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말씀
수업
이론

1. 포도원 주인은 소작료를 받기 위해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나요?(13절)

□ □ □ □ □ □ □ □

2.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서,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14절)

3.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한 일을 듣고, 농부들을 어떻게 했나요?(16절)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보세요.



삼속으로

포도원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어요.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존중해주리라 기대했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했어요. 결국 주인은 농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라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비록 예수님은 집 짓는 사람들에게 쓸모없어 버림받은 돌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집 모퉁이들이 되세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이 돌을 중심으로 벽을 쌓고 건축자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기도로

하나님! 감사해요.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이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주셨듯이, 나도 이웃과 친구, 가족,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16 . . .

부모님 확인 :



누가복음 20:19-26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19.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20.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체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21.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22.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23.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4. "데나리온 한 닢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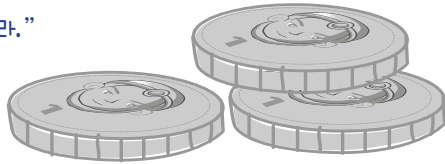
26.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말씀
속으로

1.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 질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19-20절)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보세요.

2. 황제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진 테나리온을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25절)

“□□의 것은 □□에게 돌려주고, □□□의 것은 □□□에게 돌려드려라.”



심사숙으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신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아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게 위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고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우리를 시기하여 우리를 속이고 함정에 빠트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드큐티를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이야기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예요.

기도문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입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27-36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28.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30.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31.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2.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33.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35.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36.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 사두개파 : 유대 종교의 당파 중 하나.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들이 많이 속해 있었다. 부활과 영적 세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참조. 막 12:18, 눅 20:27, 행 23:8)

* 28절 : 모세의 글은 신명기 25:5로 '형사취수법'을 가리킨다. 형제 중 형이 결혼하여 자식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형의 대를 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
수업

1. 사두개파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질문했나요?(28절)

2.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옳은 것에는 O표, 틀린 것에는 X표 하세요.(34-36절)

- ①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
- ②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
- ③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천사와 같다. ()
- ④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



심숙으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그 질문은 7형제가 형사취수법에 따라 한 여자와 연달아 결혼했는데 7형제 모두 자식 없이 죽었고, 여자도 죽었다면, 만일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의 때에는 어느 누구도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나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어요. 나와 우리 가족들, 나의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요.

기도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편지를 써보세요.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누가복음 20:37-40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37.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 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38.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39.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40.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1.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37절)

말씀
속으로

“□□□□의 □□□□, □□□□의
□□□□, □□□□의 □□□□”

2.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38절)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의 말을 언급하시면서 부활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지 몇 백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비록 인간들이 보기에는 죽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도록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나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하게 사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 OO(이)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해요. 믿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하게 사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 OO(이)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해요.

기도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먼 길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듯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하리라”

-사무엘상 2:30-



위드



1월 다섯째주
2016년 1월 31일~2월 6일



Memory Time



좋은 땅을
준비해 보세요

다섯째 주

♥ 주제 : 예배와 말씀

♥ 암송구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15

♥ 성경이야기 좋은 땅을 준비해 보세요 ▷누가복음 8:4~15

♥ 오늘의 포인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11절)
- ②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어느 곳에 떨어졌나요?(5-8절)
- ③ 각기 다른 곳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나요?(12-13절)
- ④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15절)
- ⑤ 오늘 말씀이 내게 어떤 도전과 바람을 주나요?

★ 교육활동 - “1월 큐티 나눔”

- ① 친구들에게 지난 주간에 했던 큐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권합니다.
- ②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 ③ 한 친구가 너무 오래 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가능한 모든 친구들이 조금씩이라도 나누도록 합니다.
- ④ 다음 번에 큐티를 나누게 될 때에는 더욱 자신의 삶에 와닿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 주세요.

Sweet Time

가족과 함께하는



다섯째주

- ♥ 주제 : 예배와 말씀
- ♥ 암송구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 누가복음 8:15
- ♥ 오늘의 포인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좋은 땅을 준비해 보세요. ▷ 누가복음 8:4~15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또한 그 말씀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의 밭이 준비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은 더욱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 Q1.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에 어떤 땅인지 (좋은 땅,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그리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Pray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 좋은 마음 밭을 갖을 수 있도록 기도해요.

GOD'S 다섯째주 TIME 1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누가복음 20:41-44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42.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43.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44.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씀
속으로

1.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나요?(41절) 빈칸을 채워보세요.

“그리스도를 의 ”



2. 다윗이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불렀나요?(44절)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의 말을 언급하시면서 부활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지 몇 백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비록 인간들이 보기에는 죽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도록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나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하게 사귀기를 바래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 OO(이)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해요. 믿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하게 사귀기를 바래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 OO(이)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해요.

기도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먼 길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듯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다섯째주 TIME 2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누가복음 20:45-47 “**율법학자를 조심하라**”

45.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6.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47.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가산 : 한 집안의 재산

말씀
속으로

1.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나요?(46절)

2.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인가요?(46-47절)



3. 율법학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써봅시다.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들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기보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교만한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면서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는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요.

기도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율법학자들처럼 나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1-4 “가난한 과부의 헌금”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렘돈 두 닢을 넣는 것을 보셨다.
3.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4.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 렘돈: 당시에 사용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

데나리온(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00분의 1이다.

* 닢: 쇠붙이로 만든 돈이나 가마니같이 납작한 물건을 세는 말.

말씀
속으로

1.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누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나요?(3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4절)

2.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렵돈 두 닢이 더 많다고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는 부자들은 넉넉한 가운데 헌금을 했지만,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사람의 겉모습이나 헌금의 많고 적음으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기도, 헌금 등을 드릴 때에, 무조건 많이 드리고 아름답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 마음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기도로

과부의 두 렵돈을 가장 많다고 칭찬하신 주님!

오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감사해요. 내 마음이 완전하게,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4 다섯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누가복음 21:5-6 “성전이 무너질 날”

5.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말씀
속으로

1. 사람들은 성전에 대해 무슨 말을 하였나요?(5절)
반면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무슨 말을 하였나요?(6절)
말풍선을 채워보세요.



말씀
속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크고 화려함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사람들은 더 화려하게 치장함으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요(고린도전서 3:16).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성전인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겉모습만을 화려하게 가꾸기보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해요.

기도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가꾸기보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해요. 그래서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친구를 포근하게 품에 안아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면 잔잔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3. 흐르는 음악에 맞추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 <시편 23:1-3, 새번역>

1.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2.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3.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OO아!

어린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해.

목자는 양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가로 인도하고, 풀밭에서 맘껏 뛰노는 동안 이리와 무서운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와 같은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쉬게 해주시지.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해치는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주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지쳐 쓰러질 때, 힘들어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셔.

벌써 2016년도 한달이 지났네.

201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OO이의 목자가 되어주실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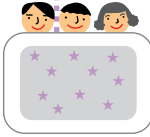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자!

우리 OO이의 삶을 응원할 거야. 오늘 하루도 화이팅!

가족과 함께하는

bed time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따뜻하고 다정하게 물어봐주세요. “OO아~ 오늘 하루 어땠어?”
2. 친구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주세요.
3. 동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에 나오는 노래가사에 곡을 입혀 불러주세요.(자유롭게)
4. 그리고 친구를 껏고 안고서 기도해주세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 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중에 -

나의 귀여운 아기 OO야!
엄마, 아빠는 우리 OO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닥쳐도. 영원히.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한 너를 사랑해.
OO이는 언제나 나의 귀여운 아기야.
엄마, 아빠가 OO를 사랑한다는 것, 잊지마!

함께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해도, 내가 나쁜 행동을 해도,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UN FUN PLAY

이 달의 퍼즐

- ♥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래 퀴즈를 풀어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으세요.
- ♥ 퍼즐을 완성한 후에는, 완성된 문장을 써보고, 암송해봅시다.

① 좋은 으 로 을 듣 고

<가로>

- ① 마태복음 25:21에 주인이 말씀대로 순종한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OOO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 ② 예수님의 OO은 온유하고 겸손해요.(마태복음 11:29)
- ③ 이사야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OO은 영원하다고 고백했어요.(이사야 40:8).

지

키

어

①

로

②

하

는

자

<세로>

- ① 야고보서 저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OO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야고보서 1:2-3)
- ②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OO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카복음 4:20)

글 자 찾 기

1.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22-23

Blank boxes for writing the 9 fruits of the Spirit.

2. 다음 글에서 9가지 열매 글자를 찾아보세요.

빈
충
병
명
시
스
나
기
서
강
오
락
참
자
선
온
인
자
오
래
참
음
예
서
비
평
음
참
화
기
병
양
으
주
해
달
해
하
나
날
선
귀
시
희
락
주
찬
평
참
유
량
아
령
말
해
수
양
해
함
비
아
선
투
성
주
온
이
레
하
랑
명
님
사
라
응
야
선
브
청
충
우
희
리
우
귀
사
기
나
하
창
찬
소
대
무
질
시
유
양
노
절
제
여
아
너
음
표
성
레
래
람
박
고
란
선
나
애
희
효
친
평
찬
락
유
도
오
사
충
신
사
자
비
락
충
선
비
화
나
님
운
성
량
유
어
일
란
해
선
화
하
오
래
눔
찬
호
산
오
양
충
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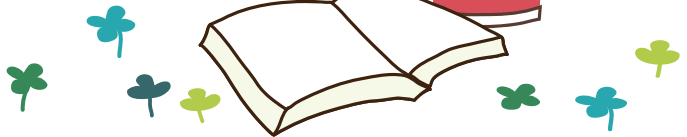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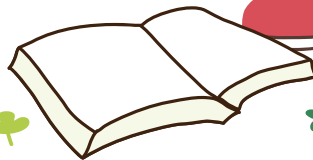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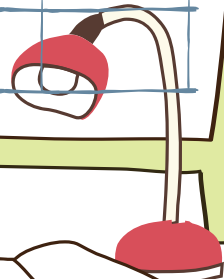
QT

STI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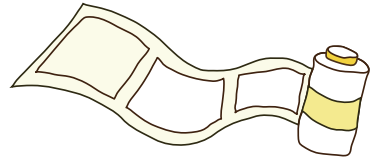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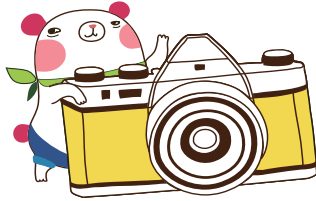


Bible
study!

| GOD'S TIME | 1 | 2 | 3 | 4 |
|---------------|---|---|---|---|
| 첫째 주 | | | | |
| 둘째 주 | | | | |
| 셋째 주 | | | | |
| 넷째 주 | | | | |
| 다섯째 주 | | | | |



위드 포토 PHOTO



초등1부

초등부 친구들~
위드포토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초등2부



4학년 황성휘

소년1부

소년부 친구들~
위드포토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소년2부

소년부 친구들~
위드포토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1월

제 목 :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글 : 로버트 먼치 옮김 : 김숙

그림 : 안토니 루이스 / 출판사 : 북뱅크



때때로 어머니는 한숨 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

하지만 밤이 되어 두 살 짜리 꼬마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살며시 아기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아기가 잠든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 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책 중에 -

이 책은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모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과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엄마의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이 닥쳐도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엄마의 사랑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친구들이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나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자기소개

| 질문에 답 해보세요. | 나 | 친구이름 () | 친구이름 () | 친구이름 () | 친구이름 () | 친구이름 () |
|--------------------------|---|-------------|-------------|-------------|-------------|-------------|
| 내 이름 | | | | | | |
| 나의 꿈 | | | | | | |
| 내가 다니는 학교 | | | | | | |
| 내가 좋아하는 음식 | | | | | | |
| 내가 좋아하는 운동 | | | | | | |
| 내가 제일 잘하는 것 | | | | | | |
| 친구들,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 | | | | | | |

교육활동지

우리반
예약
배속

Blank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text entry.

memo



memo

